

〈제시문 가〉

내가 그대와 논쟁을 벌였는데 그대가 나를 이기고 내가 그대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대가 옳고 나는 옳지 않다는 것이요? 반대로 내가 그대를 이기고 그대가 이기지 못했다면 나는 진실로 옳고 그대는 옳지 않다는 것이요? 아니면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한쪽은 옳지 않다는 것이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대와 내가 모두 옳거나 옳지 않다는 것인가요? 옳고 옳지 않음에 대해 나와 그대조차 서로 알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말로 혼돈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니, 내가 누구로 하여금 옳지 않는 것을 바로잡게 할 수 있겠소?

그대와 의견이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한다면 이미 그대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니 어찌 바로잡을 수 있겠소? 나와 그대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한다면 이미 나와 그대 모두와 생각이 다르니 어찌 바로 잡을 수 있겠소? 나와 그대 모두와 의견이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한다면 이미 두 사람 모두와 의견이 같으니 어찌 바로 잡을 수 있겠소? 결국 나와 그대, 그리고 그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니,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요?

〈제시문 나〉

무슨 거창한 이념이 있었다기보다는 거짓이 태생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살았나 봅니다. 특히, 대중을 속이고 바보로 만들면서 개인적인 치부나 향락에 몰입하는 권력 집단의 거짓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지키려 국민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인간다운 권리와 정체성을 박탈하는 집단이죠. 내가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칩니다. 진실은 한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져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영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발전 사회의 진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시문 다〉

꿈이 소원성취의 직접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소원성취가 인식불가능하고 가장된 형태로 나타날 경우, 이러한 소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기제가 작동하고, 그 결과로서

소원성취는 왜곡된 형태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어적인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소원은 왜곡된 형태로서 꿈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내적 심리상태에 상응하는 것을 일상에서 찾아보자. 사회생활 어디에서 그와 유사한 심리적 활동의 왜곡을 찾을 수 있을까? 가령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권력을 쥐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러한 권력의 자장(磁場)내에 있을 때다. 그런 경우 후자는 자신의 심리적 표현을 왜곡한다. 아니면 ‘위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해하는 예의범절도 대개는 이런 위장에 속한다. 내가 독자들을 위해 내 꿈을 해석할 때도 어쩔 수 없이 꿈의 내용을 왜곡한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해석상의 왜곡에 대해 괴테는 탄식하고 있다. “네가 알고 있는 최상의 것을 사내아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권력자들에게 듣기 싫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문인(文人)의 상황 또한 이와 유사하다. 문인이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면 권력자는 그를 탄압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구두에 의한 의사 표명이 아니라 인쇄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권력자는 사전에 검열을 강화할 것이다. 문인은 검열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견해를 부드럽게 각색하거나 교묘하게 왜곡한다. 그는 검열의 강도와 억압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비판적인 내용을 제한하거나 직접적인 표현대신 비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니면, 불쾌한 내용을 악의 없이 보이도록 위장하고 은폐해야 한다. 예컨대 국내의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고관대작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검열이 엄격할수록 위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글쓴이 본인의 원래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은 점점 더 교묘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제시문 라〉

도시문명의 발생과 전통종교의 붕괴는 우리시대의 두 가지 주요특징이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도시화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거대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 이런 현대의 도시화 형태는 전통적인 세계관의 잔해에서 솟아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졌다. 세속화 역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파악하는 방식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속화는 세계가 자신에 대한 종교적인 또는 유사 종교적인 이해에서 느슨해지는 것, 모두 폐쇄적 세계관을 일소 하는 것, 모든 초자연적 신화와 신성한 상징을 깨뜨리려는 것이다.

세속화는 ‘역사의 탈운명화’ 즉, 세상이 자기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삶에서 더 이

상 행운의 신이나 복수의 신을 탓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간의 발견이다. 세속화는 인간이 저 너머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세속화가 인간의 성숙화 과정을 가르킨다면, 도시화는 그것을 발생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 도시화는 다양성과 전통해체가 최고조에 이르는 공동생활의 형태를 뜻한다. 그것은 기능적 관계가 늘어나는 비인격성을 의미한다. 이런 도시화로 인해 관용과 익명성이 전통에 뿌리박고 있는 도덕적 강제나 친밀성을 대신하게 된다.

익명성과 이동성은 도시에서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그것들은 도시환경에 필수불가결한 존재 방식이다. 익명성은 법과 인습에 굴레와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가능성으로 기능한다. 도시생활의 익명성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편, 이동성은 사회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동성을 반대해 왔다. 또한 거주지의 이동은 항상 사회적 또는 직업적 이동으로 이어진다. 동화책에서 조차 자식들은 ‘그들의 행운을 찾기 위해’ 가족의 품을 떠난다. 진보된 산업사회는 이동성이 없으면 질식한다. 사람들은 이동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일자리가 여러 도시에서 나타난다.

<제시문 마>

작은 나라 적은 백성(小國寡民)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중하게 여겨 멀리 이사하지 않게 한다.

갑옷과 무기가 있지만 쓸 일이 없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노끈의 매듭으로 셈하게 하라

그 먹는 것을 달게 여기고,

그 입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 거처를 편안히 하고,

그 풍소글 즐거워하게 하라.

이웃나라를 마주보고

닭과 개의 소리가 서로 들리되

백성이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1) ‘진실’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의 관점을
비교, 분석 하라. (50점)

문제2) 문명에 대한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상이한 입장을 기술하라. (50점)